KIA 방망이 침묵

그레이도 8안타 뭇매
삼성에 1-6 대패

5회말 KIA 7번타자 손지환은 1사 주자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초구를 노렸으나 포수 파울 플라이 아웃.

평소 '순둥이'로 알려진 손지환은 화가난 듯 갑자기 배트로 홈 플레이트를 내려쳤다.

7회말에는 우익수 플라이 아웃을 당한 서브넥이 1루로 달려 나간 뒤 헬멧을 바닥으로 벗어 던졌다. 둘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으니 속상했던 모양이다.

KIA는 이날 손지환, 서브넥을 포함해 전체 타자가 4회까지 단 한개의 안타도 뽑아내지 못하는 빈타에 허덕였고 9회 이재주의 좌중간 솔로포로 완봉패만 겨우 면했다.

그동안 잘 던지던 KIA 에이스 그레이 싱어도 올 시즌 유독 자신만 나오면 침묵하는 타선에 부담감을 느낀 듯 이날은 5이닝 8안타 5자책점으로 무너졌다. 그레이는 지난달 12일 두산전에서 7.2이닝 1실점 호투하고도 1-1로 비겨 승수를 챙기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삼성전에서도 7.1이닝 동안 1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꽁꽁 묶어놨으나 팀이 2-3으로 패해 다 잡은 1승을 날렸다.

결국 그레이는 3경기 23이닝동안 2실점, 방어율 0.78의 놀라운 성적에도 1승이 전부다. 흔들릴 법도 하다.

KIA는 지난달 30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정규리그 삼성과의 경기에서 장단 안타 10개를 내주며 1-6으로 패했다.

한편 KIA는 지난달 29일 열린 삼성전에서는 9-5로 승리했다. 이날 광주구장은 지난 2003년 한화전 이래 3년여만에 1만4천12명이 입장하는 만원 관중을 기록했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30일 광주경기

삼성	0	3	2	0	0	0	1	0	0	6
KIA	0	0	0	0	0	0	0	0	1	1

▲승리투수=브라운(1승2패)
▲패전투수=그레이싱어(1승1패)
▲홈런=이재주 2호(9회 1점.KIA)

공중 볼 다툼

지난달 30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프로축구 FC서울과 성남 일화의 경기에서 서울 박주영(오른쪽)과 성남 박진섭이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용호가 광주 구했다

인천 원정서 종료직전 동점골 1-1비겨

전기리그 우승이 확정된 성남 일화가 안방에서 FC서울을 꺾고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고 광주 상무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성남은 지난달 30일 분당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두두의 결승골과 남기일의 추가골로 FC서울을 2-0으로 제압했다.

광주 상무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 셀미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5분 김용희가 아크 정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박용호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슛으로 연결, 1-1로 경기를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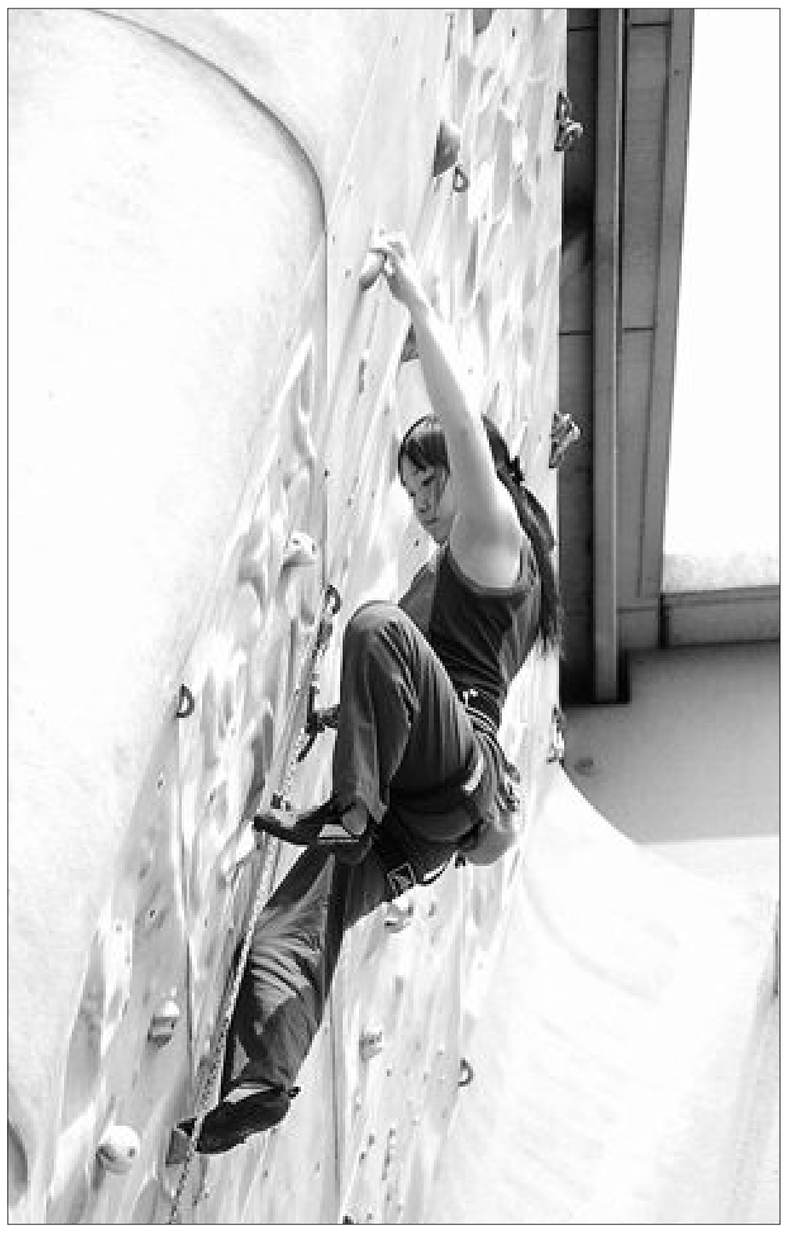
한편 전남은 지난달 29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2-2로 비겨 올 시즌 9경기 연속 무승부와 함께 11경기 연속 무패(1승10무)행진을 이어갔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박지성 개성 없었다"
올시즌 최하평점 4점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첼시의 리그 2회 연속 우승을 눈 앞에서 지켜본 것만 해도 서러운데 올 시즌 최저 평점까지 받았다.

박지성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런던 스탬포드브리지에서 열린 2005~200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차전 첼시와 원정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지만,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로부터 '개성 없었다(anonymous)' 는 혹평과 함께 4점을 받았다.



수직 인공암벽 오르는 챔프 광주시산악연맹 주최로 지난달 30일 광주 상무공원 인공암벽에서 열린 '제18회 송원배 전국등반경기대회'에서 김자인(19·일산동고 3년)양이 수직의 바위를 힘차게 오르고 있다. 김양은 지난 2004~2005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여자 일반부 1위를 차지, 3연패를 달성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검도팀 전국대회 제패

시·도대항 단체전서
대구시 4-2 꺾고 우승

제 40회 전국 시·도 대항 검도대회에서 광주시 검도팀이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광주시 검도팀은 지난달 28일 충남 온양 국민생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대구시를 4-2로 꺾고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각 부별 선수들이 한 팀이 돼 출전하는 경기로 광주 검도팀은 초등부 김동민(유덕초 6년), 중등부 조경철(서석중 3년), 고등부 강성민(서석고 3년), 여자부 한윤경(오치 검도관), 대학부 이재경(조선대 4년), 공무원 이강산(서석중 교사), 일반부 김태호 (광주OB팀) 등 총 7명이 한 팀으로 출전했다.

1회전에서 전북을 3-2로 누르고 8강전에 진출한 광주 검도팀은 충북과의 대결에서 2-2로 동점을 이룬 뒤 조선대 이재경이 충북과의 최종 대결에서 박상섭을 제압, 4강전에 안착했다.

광주 검도팀은 대전과 맞붙은 4강전에서는 4-1로 가볍게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최재호 기자lion@kwangju.co.kr

박태경 육상 110m허들
13초61 비공인 한국신

한국 허들의 에이스 박태경(26·광주시청)이 한국기록을 능가하는 쾌속질주를 펼쳤으나 풍속 때문에 공인받지 못했다.

박태경은 지난달 29일 일본 히로시마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0회 오다미키오 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10m 허들 결승에서 13초61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 자신이 2003년 9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세운 한국기록(13초71)을 0.1초 앞당겼다.

그러나 박태경의 기록은 뒷바람이 기록 인정 기준(초속 2m)을 초과해 초속 3.3m로 부는 도중에 작성된 것이어서 한국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유학 중인 박태경은 선진적인 허들링 기술을 체득하면서 기록 상승세가 눈에 두드러져 한국기록 작성과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이 기대된다.

/최재호 기자lion@kwangju.co.kr

한국 남자탁구 4강

세계선수권 단체전

한국 남녀 탁구 선수들이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기분 좋은 승전가를 불렀다.

역대 최고의 드림팀으로 평가받는 남자대표팀은 체코를 제물로 준결승에 올랐고 4강 길목에서 덜미를 잡혔던 여자팀도 북한과 5~8위전 남북 대결에서 승리했다.

유남규 감독이 있는 한국 남자팀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새벽 독일 브레멘 AWD 돔에서 열린 단체전 8강에서 오상은(KT&G)과 유승민, 주세혁(이상 삼성생명)을 앞세워 체코를 3-0으로 완파했다.

한국은 오스트리아를 3-1로 물리친 홍콩과 1일 새벽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다툰다.

최홍만 올 첫 K-1 대회 승리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6)이 올해 첫 K-1 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다.

최홍만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미라지 호텔에서 열린 일본 종합격투기 K-1 월드그랑프리 슈퍼파이트 경기에서 프로레슬러 출신의 더 프레데터(미국)를 상대로 3-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 중계

1일(월)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15 : 00·KBS SKY SPORTS)

2일(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미들스브로〉(04 : 00·MBC ESPN)